



## 가장 매혹적인 업사이클링: 제니스, 노나 소스(Nona Sourc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화려한 꾸뛰르 패브릭을 입은 시계 스트랩을 선보이다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이끄는 선구적인 브랜드, 제니스는 진보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언제나 지속 가능성 및 책임 있는 공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니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세스와 제품을 최적화하는 등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LVMH 의 스타트업 기업인 노나 소스(Nona Source)와의 파트너십 또한 이 노력의 일환입니다. 파트너십을 통해 제니스는 LVMH 패션 & 가죽 제품 메종의 화려한 여분 패브릭을 시계 스트랩으로 새롭게 디자인해 선보입니다. 이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의 시작은 바로 데피 미드나잇 컬렉션입니다.

노나 소스는 LVMH 의 경영자 마인드 개발 프로그램인 DARE(Disrupt, Act & Risk to be an Entrepreneur)를 통해 탄생한 최초의 온라인 리셀러 플랫폼으로, 럭셔리 패션 메종의 여분 패브릭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불어넣어 다양한 예술가들이 소재를 구매해 기존 자원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이처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접근법은 제품의 탁월한 품질과 매력은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친환경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노력하는 제니스의 헌신과도 그 궤를 같이 합니다.

*“노나 서비스와의 협업은 책임 의식 있는 친환경 아이디어이자 동시에 제니스 매뉴팩처가 추구하는 럭셔리한 혁신입니다. 고급 소재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는 업사이클링을 선보일 이번 이니셔티브를 통해, 데피 미드나잇 컬렉션에 하이 패션의 매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니스는 이 특별한 스트랩이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니스와 노나 소스가 함께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가기를 바랍니다.”* 제니스 CEO 줄리앙 토나레(Julien Tornare)가 이번 콜라보레이션에 대해 전했습니다.

노나 소스의 공동 창립자 로메인 브라보(Romain Brab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니스와 함께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데피 미드나잇의 모던한 여성성은 럭셔리와 환경 의식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며, 여분의 소재를 시계로 재탄생시킨다는 아이디어 LVMH 그룹이 추구하는 순환하는 창의성이라는 가치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함께 만들어낸 첫 결과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제니스와 노나 소스의 새로운 컨셉이 담긴 멋진 콜라보레이션은 데피 미드나잇과 함께 시작됩니다. 데피 미드나잇은 제니스 매뉴팩처에서 여성을 위해 제작한 가장 다채로운 컬렉션으로, 간편한 스트랩 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양한 컬러와 텍스처를 살린 패브릭에 러버 안감을 더해 정교하게 수작업된 스트랩이 출시됩니다. 각각 바닐라 화이트 컬러의 몰스킨 우븐 코튼, 블루 컬러의 실크 및 울 미카도, 세이지 그린 컬러의 워시드 크래이프, 샌디 베이지 컬러의 폴리-비스코스 캔버스, 핑크 컬러의 데님, 생동감 있는 옐로우 컬러의 트리코틴, 켈을 살린 크림 컬러의 모헤어 소재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트랩은 최고급 패브릭을 사용해 수작업으로 맞춤 제작된 오프 꾸뛰르 액세서리로, 특별한 날 데피 미드나잇을 더욱 아름답게 연출해 줍니다.



모든 데피 미드나잇 모델에 호환되는 7 가지 스트랩은 시계 케이스백에 탑재된 실용적이고 간편한 스트랩 교체 시스템을 활용하여 특별한 도구 없이 탈착할 수 있으며, 제니스 온라인 부티크 및 전 세계 오프라인 부티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특별한 스트랩과 함께 제니스는 창의성, 독창성,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데피 미드나잇 컬렉션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컬렉션에서도 노나 소스가 공급하는 새로운 패브릭을 활용한 스트랩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세계를 만나보세요!



## 제니스: 꿈을 향한 도전.

제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추구하며 이를 이뤄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1865년 설립 이후 제니스는 최초로 현대적 의미의 시계 매뉴팩처로 자리잡았으며, 제니스 시계는 영국해협 횡단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루이 블레리오(Louis Blériot)부터 성총권 자유낙하 기록을 세운 펠릭스 바움가트너(Felix Baumgartner)에 이르기까지 큰 꿈을 꾸며 불가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특별한 인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제니스는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드림허스(DREAMHERS) 플랫폼을 마련해 과거와 현재의 선구적인 여성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들에게 주목합니다.

제니스 시계에는 모두 인하우스 방식으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니스는 1969년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를 출시했으며, 최근에는 0.1 초까지 측정 가능한 크로노마스터 라인과 0.01 초의 정밀성을 갖춘 데피 컬렉션을 통해 더욱 정밀한 컴플리케이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니스는 1865년부터 지금까지 대담한 도전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이들과 함께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나만의 꿈을 향해 손을 뻗을 시간입니다.

## 노나 소스 소개

LIFE 360 프로그램을 통해 LVMH 그룹의 환경 보호 철학을 실천하는 노나 소스는 LVMH 패션 & 가죽 제품 메종에서 발생한 여분 패브릭과 가죽을 새롭게 탄생시켜 순환 가능한 창조성(Circular Creativity)을 촉진합니다.

2021년 공식 런칭된 노나 소스([www.nona-source.com](http://www.nona-source.com))는 패션 및 럭셔리 분야를 아우르는 유럽의 가장 큰 생태 전환 촉진 허브, 라 카제른(La Caserne)에 파리 쇼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